

## [새사연 20대 정치행태 분석 프로젝트]

###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이 20대 투표율에 미친 영향

---

2010.10.6 | 구자은, 성치훈\_새사연 20대 프로젝트팀

---

#### 목 차

1. 문제제기
2. 정치효능감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3. 촛불집회와 투표율의 상관관계
4. 결론



<http://saesayon.org>

20대의 탈정치화, 그리고 그것을 상징하는 선거 때의 낮은 투표율은 2000년대 이후 늘 논란거리였다. 지식인 사회를 비롯해 시민사회까지 20대의 탈정치화를 소리높여 비판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20대들이 지난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투표율과 압도적인 야당지지로 선거판세를 뒤흔들자 이에 대한 분석과 해석이 지금까지도 난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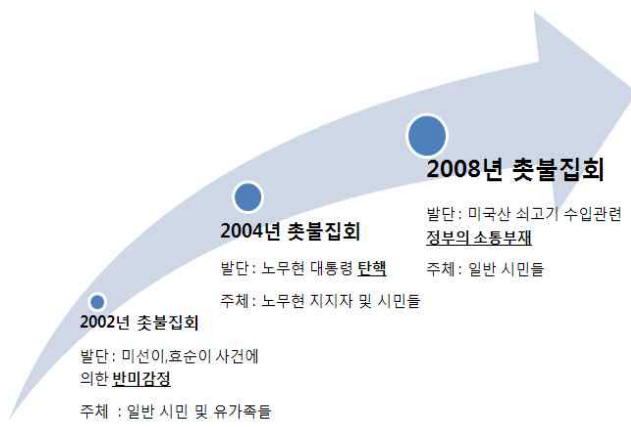
새롭게 등장한 스마트폰과 트위터가 이끈 소셜네트워크의 영향이라는 과학적(?) 분석에서 20대를 타겟으로 한 정책들이 유효했다는 아전인수식 해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실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주장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20대 자신들이 직접 20대의 정치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 최근 어떤 경향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분석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원장 손석춘)’이 20대 회원들과 그들의 친구들을 모아 직접 20대들의 정치참여행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획 기사를 작성해보도록 했다. 총 8명의 20대들이 3개월간 발로 뛰며 작성한 이 기획기사는 20대들의 정치참여행태를 둘러싼 각종 담론들의 정합성을 각종 자료와 통계들로 검증해보고 새로운 해석과 분석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편집자주>

## 1. 문제제기

스펙 쌓기에 여념이 없고 잘못된 현실에 분노조차 느끼지 못하며 자신의 투표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20대가 달라졌다. 지난 6.2 지방선거 20대 투표율을 두고 하는 소리다. 20대의 투표율은 지방선거치고는 이례적으로 약 40%로 잠정 집계됐다. 사실 그동안 20대는 말 그대로 동네북이었다. 가장 적극적으로 잘못된 현실에 저항해야 할 20대가 보신주의에 빠져 소위 ‘제 밥그릇 챙기기’에만 몰두한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386세대와의 비교도 빠지지 않았다. 한국의 어두운 미래를 점칠 때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암울한 상황들을 설명할 때에도 수동적인 20대는 그 원인으로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이렇게 대한민국 20대는 무책임하며 희망 없는 세대로 치부되곤 했다.

그런 20대가 달라졌다. 달라졌다고 선부르게 단정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지금까지 쏟아진 비난의 화살에 대응할 반전의 계기는 마련했다. 국민적인 관심이 집중되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도 아닌 지방선거에서 출구조사 결과 약 40%의 투표율을 보인 것이다. 절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동안 20대의 투표율을 살펴보면 이번 투표율은 놀라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아래 그래프 참조)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투표장으로 가게 만들었을까. 투표를 하거나 기권을 하는 등 투표행위에 있어 결정의 문제는 학문영역에서 이미 오랜 관심사였지만, 굳이 학문의 이름을 빌리지 않아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소재임이 분명하다. ‘그동안 침묵했던 20대는 왜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독 더 큰 목소리를 냈을까’하는 것도 확실히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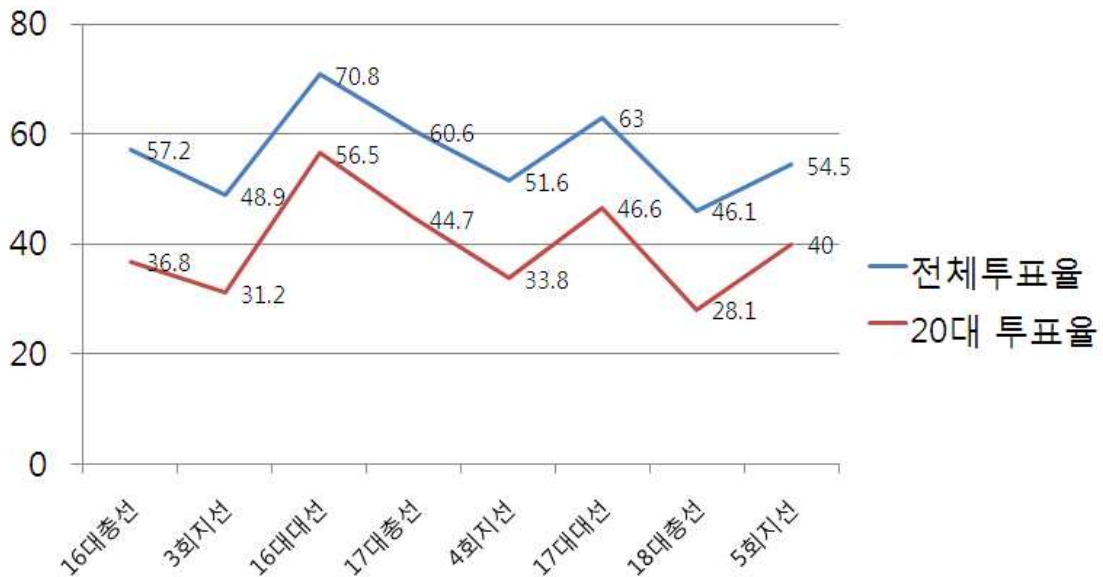


지난 2002년에 미선이·효순이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반대 촛불집회,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로 이어지며 특히 2008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의 상관관계를 지난 지방선거에서

20대가 높은 투표율을 보인 원인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정치효능감은 자신의 정치행위가 실제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념으로 투표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다. 정치효능감은 가족, 교육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형성되는데 특히 집회와 같은 비투표적인 정치참여형식을 통해서 증대되기도 한다. 2002년 촛불집회 이후 첫 선거였던 16대 대선에서 20대들은 이전의 선거에 비해 매우 두드러진 투표율을 보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분석해보면 촛불집회가 정치효능감을 높일 수 있었고, 특히 20대는 투표행위에 있어 촛불집회 등에 따른 동원적 참여의 특성도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 촛불집회 이후에 처음으로 치러진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촛불집회의 주도적 세력으로 참여한 20대들이 집회를 통해 정치효능감을 높인 것이 결국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촛불집회를 통한 정치효능감 상승이 지난 지방선거의 20대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먼저 정치효능감, 정치효능감과 투

표행태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촛불집회는 투표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었는지 알아볼 것이다.

< 최근 선거별 전체 투표율 및 20대 투표율 >



(단위:%, 자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2. 정치효능감과 투표율의 상관관계

### 2.1 정치효능감이란?

정치효능감은 학자마다 다르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는 ‘정치에 대한 개인의 감정적인 인식’으로 정치적 능력, 영향력, 정치 체제의 반응성과 관련이 있으며, 모든 정치과정이 정치효능감의 대상으로 포함된다. 다시 말해 정치효능감은 한 개인이 자신이 정치적 주체로서의 자격과 능력이 있으며 자신의 의사를 정치에 반영할 수 있다는, 그리고 자신이 의도한대로 정치체제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믿음은 정부나 정부기관과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부모나 동료, 대중매체 등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응답자의 주관적인 능력’과 ‘정부의 대응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응답자의 주관적 능력이란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기 인식으로 “정치와 정부가 하는 일은 너무 복잡해서 나 같은 사람은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생각과 관련이 있고, 정부의 대응성은 정치기구들이 시민들의 기

호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대한 응답자들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다. 이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는지 관료들이 관심을 가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생각과 연관되어 있다. 전자를 내적효능감으로, 후자를 외적효능감으로 규정한다.<sup>1)</sup> 흔히 설문조사에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제시되는 “내가 투표를 해도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은 내적효능감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2.2 정치효능감과 투표행태의 상관관계

정치효능감이 투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많은 학자들의 연구결과를 통해 증명되었다. 세릴과 보글러는 정치효능감이 높을수록 정치참여활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대체로 정치적 관심 및 정치효능감과 정치참여는 상호작용적 효과를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콘웨이는 정치효능감이 정치참여(투표행위)를 매개하는 중요한 변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두라는 정치효능감이 투표율에 있어서 정치적 소외보다 더 높은 관련성을 가지며, 또한 투표의 정치참여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리차드슨은 정치효능감을 가진 시민들은 정치적 과정에 더 참여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시민들은 정부의 합법성에 더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sup>2)</sup> 국내 투표에서도 정치효능감과 투표율의 상관관계는 드러나고 있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17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에 따라 투표율은 최대 30%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아래 그래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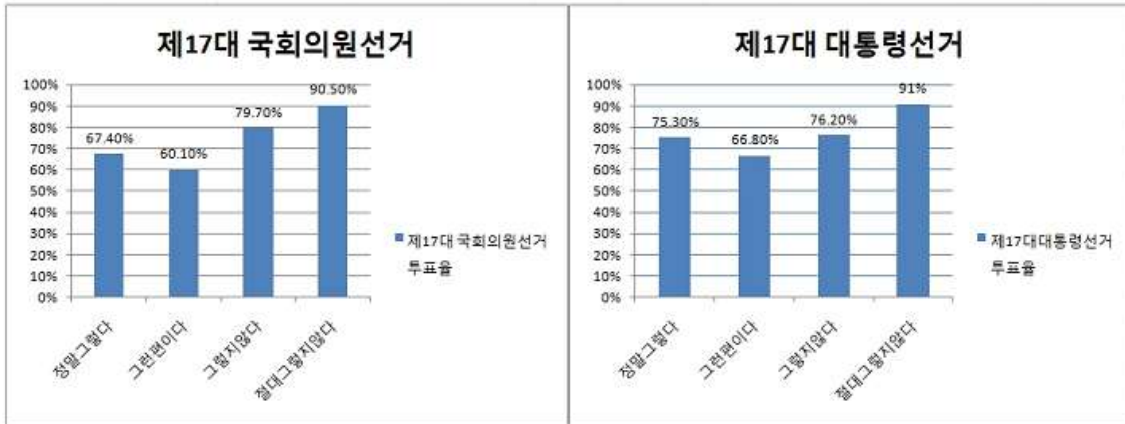
## 3. 촛불집회와 투표율의 상관관계

### 3.1. 선행연구로부터 상관관계 도출

정치효능감은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치적 참여 등의 직접적인 경험이나 주변사람, 대중매체 등을 통해서 폭넓게 형성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활동, 학생회 임원 참여 경험, 학생들이 지역사회 및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과정이나 이슈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참여학습 등이 정치효능감을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렇다면 촛불집회는 정치효능감 형성에 어떤 작용을 했을까.

1) 이지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pp. 15~17

2) 송종길, 박상호, 「정치적 불만과 미디어 이용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7대 총선의 정치형태를 중심으로」, 『韓國 言論學報, Vol.49 No.3』, 한국 언론학회, 2005, pp. 215~216



※ 조성대, 「투표 참여와 기권」, 『투표행태의 이해』, 한울아카데미, 2009, pp. 247등 도대로 재구성. 정말 그렇다, 그런 편이다, 그렇지 않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 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라는 물음에 대한 대답들이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하며 높은 정치효능감을 드러낸 집단의 투표율이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영인의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법의식 및 정치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는 공익추구 정치참여동기, 숙의형 정치참여절차, 투표정치참여양태, 비투표적 정치참여양태, 정치참여성과, 성별, 나이, 종교, 학력, 가족 월소득 중 비투표적 정치참여양태와 공익추구 정치참여동기를 정치효능감 형성에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2가지 요소로 지목하고 있다. 이는 공익적 참여동기가 참여자의 자신감과 능동적 자세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낸다.<sup>3)</sup> 공익은 정의하기가 어려운 개념이지만 일반적으로 다수 공중이 공유할 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다수에 귀속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타인 배려적이며 이타적인 것도 공익에 포함된다. 공익추구 정치참여는 참여자가 이런 공익적 동기에서 참여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sup>4)</sup> 2002년과 2008년의 촛불집회는 그 특성상 위 연구에서 정치효능감 형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비투표적 정치참여양태와 공익적 정치참여동기를 모두 만족시킨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여가 20대의 정치효능감을 높여 결국 높은 지방선거의 투표율로 나타났을 것이라는 설득력 있는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20대의 경우, 촛불집회 등의 영향으로 동원에 의한 투표참여 성향이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김옥은 그의 논문에서 20대는 투표시 자발적 참여뿐만 아니라 동원에 의한 영향도 받는다는 것을 밝혀낸 바 있다.<sup>5)</sup>

3) 김영인,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법의식 및 정치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社會科教育, Vol.42 No.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3, pp. 152

4) 위의 논문, pp. 133

5) 김진하,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Vol.1 No.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16대 대선 당시 20대의 투표율이다. 20대 변수는 14대 대선부터 17대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투표율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유일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였다. 역대 대선에서 20대는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40대에 비해 투표에 참여할 확률이 0.2~0.3배에 불과했다. 예외가 있다면 16대 대선에서 20대의 투표율이 40대 투표율의 0.47배로 전에 비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것인데, 이는 월드컵과 미선이·효순이 장갑차 사건, 촛불집회 등으로 20대의 자발적 참여 혹은 동원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sup>6)</sup> 즉 다른 세대에 비해 동원에 의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 20대가 2008년 촛불집회에 높은 비율로 참여했다면, 촛불집회와 투표율의 상관관계를 보다 직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

촛불집회와 정치효능감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도 존재한다. 2002년에 시작된 촛불집회가 청소년들의 정치효능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는 이미 한 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곽한영은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서울시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의 재학생들(중1~고3)을 모집단으로 삼아 2003년 7월부터 약 두 달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촛불집회 참여를 통해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기 인식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들의 내적효능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던 자신의 정치적 능력을 외부적으로 확인받게 되어 촛불집회 참여가 외적효능감의 변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청소년들은 촛불집회에 참여하면서 자신들의 활동이 갖는 의미와 사회의 반응에 더욱 민감해지게 되고, 정치적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게 됨으로써 더 높은 정치적 관심도를 보이게 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sup>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로 미루어 2008년의 촛불집회 역시 20대의 정치효능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렇게 높아진 정치효능감이 이들을 투표장으로 이끈 원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다.

### 3.2. 2002년, 2008년 두 번의 촛불집회 그리고 투표율

연구소, 2008, pp. 18

6) 위의 논문, pp. 17-18

7) 곽한영,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pp. 43-48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젊은 세대들의 집회참여는 그들의 정치효능감 상승으로 이어졌다. 2002년 촛불집회로 인해 정치효능감이 상승한 20대들이 맞이한 첫 선거는 16대 대선이었고, 상술했듯이 당시 20대의 투표율은 전후 선거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2002년에 함께 집회에 참여하며 정치효능감이 상승했던 중·고등학생들이 유권자로 등장하게 되면 20대의 투표율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도 있었으나 2004년 17대 국회의원선거, 2006년 4회 지방선거 등 이후에 있었던 선거에서 20대의 투표율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젊은 세대들의 정치효능감을 높여주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의 변화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이다. 2008년의 촛불집회는 집회의 ‘확산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전환기’에는 대학생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 연령별 분포도>

연령	촛불집회 참여비율	전체 인구비율
16-18세	9.40%	8.15%
<b>20대</b>	<b>38.00%</b>	19.27%
30대	28.90%	21.57%
40대	18.40%	21.08%
50대 이상	5.40%	29.92%
표본수	1,326명	

(자료출처:8)

2008년 촛불집회 참여자들과 그들의 정치효능감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선행연구와 2008년 촛불집회에 참가했던 중·고등학생들을 비롯한 20대 대학생들의 사회의식 변화와 관련된 조사들을 통해 정치효능감 변화에 대해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집회참여 이후 사회의식의 변화>

8) 조기숙, 박혜윤,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09, pp. 253 토대로 재구성, \* 참고논문에서는 연구 표본의 10%에 정도에 해당되는 중학생 응답자의 설문을 제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중학생들까지도 대상으로 포함하였지만 그러한 부분이 20대 참가자의 비율이 두드러졌다는 자료의 전체적인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아 그대로 참고하였다.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동의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율	평균	표준편차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아졌다.	93.4	4.6	0.7	88.5	4.3	0.8	92.3	4.4	0.7
정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되었다.	88.2	4.5	0.7	79.5	4.1	0.9	93.6	4.5	0.7

(출처:9), 단위 : %, 5점 척도로 조사)

우선 위의 표를 통해 2008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10대들의 사회의식은 상당히 참여적이고 정부비판적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집회에 참여했던 10대들의 93%가 ‘사회문제에 관심이 높아졌다’고 응답했고 1년이 지난 뒤의 조사에서도 92%가 그 의견에 여전히 동의하고 있었다. 또한 참여자의 88%가 ‘정부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 되었다.’고 답하였으며 1년 뒤에는 동의율이 더 증가하여 약 94%에 이르는 참여 학생들이 정부에 더 비판적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다.<sup>10)</sup> 이러한 응답결과로 보았을 때 그 당시 촛불을 들었던 학생들이 이전보다 더 사회비판적인 의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 1,2,3차 조사의 학교 분포 >

단위 : %, (실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실수)
1차 조사 (2008년 6월)	33.9	66.1	-	100(333)
2차 조사 (2008년 9월)	28.5	71.5	-	100(112)
3차 조사 (2009년 8월)	11.7	57.6	30.7	100(112)

특히 1년이 지난 뒤에 실행한 3차 조사는 그 대상을 20대 대학생들까지로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20대들 역시 좀 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정부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렇게 사회의식이 변화된 젊은 세대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정치

9) 김철규 외 3인, 「촛불집회 10대 참여자의 정체성과 사회의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봄호』, 비판사회학회, 2010, pp. 265-290

10) 위의 논문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효능감이 촛불집회를 통해 상승하였고, 이것이 투표장으로 이들을 이끈 원동력이 됨으로써 20대 투표율 상승이라는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통해 지난 지방선거에 새롭게 등장한 20대들은 2008년 촛불집회의 경험을 통해 사회참여에 좀 더 적극성을 보이게 되면서 등장한 세대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학계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 중에는 당시 촛불집회가 밑으로부터의 민주주의의 새로운 특징을 유감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정치적인 결과로 연결하는데 실패하였지만, 그렇게 생겨난 새로운 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다시 나타날 것<sup>11)</sup>이라는 예측들이 있었다. 결국 지난 지방선거에서 등장한 20대들은 촛불집회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생겨난 새로운 힘들이 표출된 하나의 유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젊은 세대들의 집회참여가 그들의 정치효능감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영향들이 2002년 촛불집회 이후에 치러진 16대 대선, 2008년의 촛불집회 이후에 있었던 5회 지방선거의 20대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20대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버리는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변화된 투표행태가 계속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정치효능감, 특히 내적효능감은 개인의 의식 문제인 만큼 한번 상승한 뒤 고정되는 불변의 것이 아니라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시 변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2002년 촛불집회에 참여했던 중·고등학생들이 몇 년이 지나 유권자로 등장한 선거에서 별다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서 이미 증명되었다. 따라서 촛불집회와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높아진 정치효능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한다면 2002년의 청소년세대들이 그러했듯이 2008년 촛불집회의 20대들도 예전의 무관심했던 모습으로의 회귀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달라진 20대의 모습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상승한 정치효능감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활발히 이루어져

11) 김상준, 「2008년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시민과 세계 제14호』, 참여연대 시민사회연구소, 2008, pp. 312-332

야 할 것이다.

## 5. 참고문헌

- 김상준. 「2008년 촛불과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 『시민과 세계 제 14호』. 참여연대 시민사회연구소. 2008.
- 김영인. 「정치참여유형에 따른 범의식 및 정치효능감 형성효과에 관한 연구」. 『社會科敎育 Vol.42 No.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회. 2003.
- 김진하. 「17대 대선 투표 참여율과 기권」. 『현대정치연구 Vol.1 No.1』.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8.
- 김철규 외 3인. 「촛불집회 10대 참여자의 정체성과 사회의식의 변화」. 『경제와 사회 봄호』. 비판사회학회. 2010.
- 곽한영. 「촛불시위 참여가 청소년들의 정치의식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송종길, 박상호. 「정치적 불만과 미디어 이용이 투표행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17대 총선의 정치형태를 중심으로」. 『韓國 言論學報, Vol.49 No.3』. 한국언론학회. 2005.
- 이지은.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활동이 청소년의 정치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2009.
- 조기숙, 박혜윤. 「광장의 정치와 문화적 충돌 : 2008촛불집회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제42집 제4호』. 한국정치학회. 2009.